안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재향군인신문

인 터 넷 향 군
www.korva.or.kr

1962년 5월 16일 창간 | THE KOREAN VETERANS NEWSPAPER | 2019년 9월 1일 일요일 제818호

'향군 회법 개정안' 폐기 서명 3개월간 126만명 참여

형평성 원칙 어긋나는 악법, 직권남용 … 반드시 폐기돼야

향군은 8월13일 지난 3개월간 '향군 회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126만 명에게 받은 서명결과와 청원서를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와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에게 각각 등기로 전달했다.

향군은 국가보훈처가 지난 2월 22일 "향군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향군회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자, "이 법은 향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향군을 식물단체로 만들어 관변단체화 하려는 의도"라고 강력 반발하며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 했었다.

지난 4월16일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이번 서명운동은 7월31일 마감 결과 126만 명이 참여 했으며 이 중 현직 국회의원도 34명이 참여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향군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회원들이 서명 운동에 참여 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보훈처가 개정하려는 법안이 그 만큼 명분이 약하고 형평의 원칙과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며, 회원들이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향군의 미래는 없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려는 법안에는 향군의 모든 수익사업의 승인은 물론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매 3년마다 재심의 하겠다는 내용과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신설 및 취소사유를 확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 및 양벌 규정까지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향군은 "입법안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향군은 보훈단체가 아닌 안보단체임에도 '보훈단체에 대한 감독권 강화' 범주에 포함시켰고, 향군은 공법인이 아닌 사법인으로 비영리사업의 수익사업에 대한 통제강화 조치는 국가 감독권의 범위와 한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향군은 타 보훈단체는 국가로부터 보훈기금, 보조금,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고 수의계약 체결권 등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향군은 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보훈성금으로 정부에 냈다가 세금 감면만 받고 되돌려 받아 목적사업과 조직운영에 사용하고 있는데 타 보훈단체와 동일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은 법체계는 물론 감독관청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했다.

해리스 미국 대사 초청강연 연기

향군은 8월29일 오전 계획되었던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 초청 안보강연을 최근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관련, 잠정 연기했다.

향군은 이 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관련, 초청강연 시기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행사 추진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해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이날 오전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해리스 대사 초청 강연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추진할 예정"이고 "해리스 대사 역시 연기 요청을 바로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젊은건각, 마음으로 조국에 다졌다

대학생 휴전선 전적지 답사 소감문 시상식

김진호 회장과 우수작 수상자로 선정된 이상철, 김동열, 정예림 학생

제12회 휴전선 · 전적지 답사 대장정에 대학생들의 답사 후기인 우수소감문에 대한 시상식이 8월27일 향군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진호 회장은 이상철(우석대학교), 김동열(광운대학교), 정예림(한국체육대학교) 등 우수작 3편에 대해 각각 상장과 함께 부상을 수여하고 지난 국토대장정 기간 중 무더위와 장마 등을 이겨내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체득한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치하했다.

2019년 휴전전 전적지 답사 대장정은 전국 75개 대학에서 지원한 지원자 중 선발된 84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6박7일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해군2함대 방문 - 해병대 상장대대 - 백마고지 - 노동당사 - 승리전망대 - 평화의 댐 - 백골병단 전적비 - 717OP - 통일전망대에 이르는 827Km 안보현장을 횡단했다.

이날 우수상을 수상한 김동열 군은 "대학생활과 처음 배우는 전공 때문에 적응하느라 1학기 내내 힘들었는데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며, "중도 포기하고 싶어도 꾹 참고 단 한 번도 열외하지 않고 걷고 또 걸으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뿌듯해 했다.

이상철 군은 "학사장교 후보생으로서 졸업하면 소위로 임관해 직접 소대를 이끌어야 하는데 이번에 직접 휴전선 155마일을 걷고 보면서 우리의 분단현장을 생생하게 깨달았다"며 "임관 후 부대원들에게 6.25전쟁의 아픔과 안보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배경지식을 쌓은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또 정예림 양은 "향군 국토대장정을 만나, 저는 인생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다"며,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잃어버렸던 열정을 다시 되찾을 수 있어 매우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임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향군 방문

김진호 회장 예방, 상호 현안 논의

제30대 국가보훈처장으로 8월16일 취임한 박삼득 신임 국가보훈처장이 8월23일 취임인사차 향군본부를 방문, 김진호 회장을 예방했다

김진호 회장은 향군을 방문한 박삼득 보훈처장을 맞아 취임을 축하하며 상호 현안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다.

신임 박삼득 보훈처장은 육군 예비역 중장 출신으로 제5보병사단 사단장과 육군본부 개혁실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거쳤다.

또 2017년에는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취임해 활동했다.

박 처장은 취임식에서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예우, 보상, 복지 · 의료, 국제협력, 보훈단체, 제대군인 등 많은 분야에서 많은 제도를 개선했고 또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개혁의 끈을 늦추지 않고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바꿔나갈 것"이라고 취임사를 통해 밝힌 바있다.

안보정세보고/한 · 일 갈등사안 분석과 향후 전망 ····· 3면

향군, '추모의 벽' 건립 성금 적극참여 단체에 감사장

김진호 회장은 8월26일 워싱턴 '추모의 벽' 성금 모금에 적극 협조해 준 육군종합학교전우회, 3군사관학교총동문회, 국군간호사관학교총동문회, 성우회, 갑종장교전우회, 해병대전우회, 기술행정사관학교총동문회 등 7개 단체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안보전망대

폼페이오 "북 '불량행동' 좌시 못해"…비핵화 촉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8월27일(현지시간) 북한의 '불량 행동'을 좌시할 수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날 미국 중부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미국 재향군인회 행사에 참석해 "우리(미국)는 북한의 불량 행동이 좌시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의 南 비난, "한미연합연습 원천적 제거 의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제노 · 이수석 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통권 143호에서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기간 전후로 5차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연습 종료 나흘만인 8월24일에도 새벽 초대형 방사포 실험 발사를 단행한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대응 차원만이 아니라 향후 모든 한미연합연습 실시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의 규모, 기간 그리고 훈련방식의 조정이 아닌 무조건 중단을 바라기 때문에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개최되면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중단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고 미국과의 합의문에 한미연합연습 중단 문제를 확실히 못 박고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무기수출통제 충실이행… 日 규제 철회 촉구

정부는 8월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무기거래조약(ATT) 제5차 당사국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당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의 수석대표인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캐치올(Catch-all) 제도 등 선진적 국내 수출 통제체제를 통해 재래식 무기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 · 자의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데 대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은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 및 전용(轉用) 방지를 위해 재래식 무기의 국제거래 규제에 관한 공통기준을 수립한 조약으로 2014년 설립돼 104개국이 가입돼 있다.

향군역사 바로알기 ⑩

향군 활동 숨은 조력, 참전 · 친목단체

긴밀한 협조 · 지원 유지… 공동운명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에는 66개의 참전 · 친목단체가 있으며 향군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전단체란 6.25전쟁이나 베트남전 등에 참전한 참전용사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를 말하며, 친목단체란 향군회원 중 군별, 임관별, 병과별, 부대별로 회원들 간에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들이다.

친목 · 권익신장 목적으로 조직 국가안보와 사회 공익활동 전개

이러한 참전 · 친목단체 중에서 향군과 뜻을 같이하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를 선별하여 향군 참전 및 친목단체로 등록하고 향군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본회는 각 친목단체의 여론을 하나로 모아 향군 조직의 응집력을 높여가고 있다.

향군친목단체로 등록되면 본회의 주요현안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회원들의 권익증진 및 복지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속 단체의 이익도 대변할 수 있다.

친목단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2년 2월 1일 향군창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향군이 창설되면서 각기별 동기생 중심으로 동기회가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순수 친목활동을 시작한 것이 그 효시다. 그 후 1955년 8월 11일 최초의 향군 친목단체로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가 출범하면서 각종 친목단체가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뒤를 이어 다양한 친목단체들이 결성됨으로서 친목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1979년 10. 26사건 이후 유사 단체들이 난립하여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어 1980년 12월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38개에 이르던 향군 친목단체도 해체되었다.

그 후 7년여가 지나고 1987년 6. 29 선언을 계기로 해체되었던 친목단체들이 활동을 재개하게 되고 본회의 친목단체로 양성화 되었다.

이를 계기로 본회는 국가안보와 사회공익기여 및 향군 명예증진을 위해 친목단체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친목단체의 양적인 팽창과 함께 사업과 활동의 질적인 면에서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참전 및 친목단체는 그 이후에도 향군과 함께 국가안보와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향군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향군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향군 추진, '추모의 벽' 건립 모금 솔선수범 적극 참여 … 붐 조성

최근에도 향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미 한국전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성금 모금 운동에 참전 및 친목단체가 솔선수범하여 적극 참여함으로 모금 운동에 '붐'을 조성하고 성공적으로 마감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향군은 66개 참전 · 친목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씩 참전 · 친목단체장 간담회 개최, 향군 주요행사 초청, 향군 안보활동 참여 권장, 자체 행사 및 활동지원 등 긴밀한 협조 및 지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향군의 참전 및 친목단체는 이제 향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동운명체이며 향군 활동의 중심에 우뚝 서서 값진 보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 향군회관 내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참전 · 친목단체는 육군종합학교전우회, 갑종전우회, 대령연합회, 영관장교연합회, 간호사관학교동문회 등 총 13개 단체가 있다.

〈홍보실〉

안보정세보고
최근 한·일 갈등사안 분석과 향후 전망

투 트랙 접근 강화하고 갈등관리 메커니즘 구축해야

한일관계는 각종 갈등 사안이 연이어 발생되는 가운데 명확한 해결 없이 문제가 계속 쌓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과거 양국의 주된 갈등사안은 주로 과거사문제에 치중되어 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외교, 안보, 통상 분야까지 확장 및 동시 발생하는 '복합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관계의 전개 과정 및 현황에 대해서 파악/평가하고, 양국의 주요 갈등사안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일관계 전개 및 현황 평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위안부합의로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일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전환시키는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정상외교의 복원을 통해 위안부문제로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한일관계는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각종 갈등 사안의 복합적 발생 및 장기화, 문제 해결에 대한 교착상태, 양국의 극명한 입장차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긍정적 평가

정부차원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지만, 경색되어 있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셔틀외교 복원에 합의하는 등 긍정적인 모멘텀을 형성하였다. 특히, 강제징용문제 등 갈등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양국간 장관급 · 국장급 회담 등이 꾸준히 개최되었고, 회의에서는 양측간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 이상의 성과를 내기 어려웠으나, 양측간 대화채널을 꾸준히 유지해 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정부차원

양국간의 상호방문객 수가 점차 증가하여 한일교류 1,000만 시대 (2018년도 기준 방일 한국인 약 753만명, 방한 일본인 약 294만명)를 맞이하는 등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최근 일본의 경제제재로 인한 갈등 속에 비정부차원인 민간부분의 교류도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

부정적 평가

대내적 측면

다양한 갈등사안의 동시발생 및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무력감이 누적되고, 과거사문제 관련 반일감정이 증대되었으며,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 각종 갈등사안에 대한 전문가, 시민사회, 이익집단 등의 다양한 의견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비판과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관련소송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사안을 '사인(私人)간의 문제'로 보는 한국과 '국가간의 문제'로 보는 일본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외적 측면

문제의 발신지가 한국이라는 인식과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 '한국이 상황의 악화를 조장한다', '한국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한국이 골대를 옮긴다', '한국은 국민감정이 법보다 우선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 및 한국 피로현상(Korea Fatigue)이 심화되고 있다.

양국관계의 측면

과거사문제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외교 · 안보 · 경제 등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과거사 문제를 분리 · 대응하는 투 트랙 접근의 실현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한일 주요 갈등사안 분석과 향후 전망

강제징용 문제

2018. 10.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구,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에서는 강제징용 문제가 과거사 갈등 사안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일본에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성립된 한일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인식함은 물론, 자국 기업의 자산압류 및 매각과 연계되는 문제로 한국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위안부문제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 공개 증언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되었으나 일본의 일본군위안부 강제성 부인으로 국제적 비판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과의 협의를 이어오던중 박근혜 정부에서 타결되어 합의문 전문을 공동 발표로 한일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합의 직후, 내용부터 시작해 과정의 이면 합의 논란과 위안부 피해자 배제 논란, 일본의 진정성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를 출범시켜, 같은 해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는 위안부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일본 측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명예 ·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일본은 국가간 체결된 합의를 준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 레이더 조사 및 초계기 갈등

2018. 12. 20일 일본이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이 사격 통제용 레이더를 조사(照射)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으나, 한국은 조난당한 북한 어선에 대한 인도적 구조 작업이었고 레이더 조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동 사안은 우호국간 군사 ·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양측의 극명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명확한 원인 규명과 양측이 납득할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마무리된 사항이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2011. 03.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발생 이후, 한국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한 것에 대해 WTO는 최종심에서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WTO협정에 합치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2019. 05. 30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한국산 넙치 등 5개 수산물 검사 강화 조치 발표는 WTO패소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일 무역 분쟁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단행한 공업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된 분쟁으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대한민국 경제제재에 돌입하여 사실상의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였다.

경제제재 내용은 1차로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2차로 수출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백색국가(27개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하였고, 3차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GSOMIA(한 ·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한 한일 양국 간 군사협정의 약칭으로 쓰이고 있다. 이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번째 군사협정으로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안보상의 신뢰성을 이유로 수출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도 지소미아의 종료를 선언해 과거사문제에서 통상 · 안보분야로까지 확산되어 한일관계는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 수출규제 철회시 재협상 가능

그 외 사안

2018. 10월 제주국제관함식에서의 일본 해상자위대 욱일기 게양 문제, 2019. 02월 문희상 국회의장의 천황 사죄 발언에 대한 일본의 항의 등 양국간 갈등사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한일 갈등 장기화 및 해결 난항 원인 분석

한일 역사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 한일협정 당시 해결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봉합된 갈등이 국가 · 사회적 변화 및 민주화 및 시민사회의 발달에 따라 분출되었고, 외교상의 전략적 모호성이 한계를 드러낸 데 있다. 양측간 해석을 달리하나 외교문제화 하지 않겠다는 비타협의 합의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봉합되었던 양국간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화

상호간 전략적 중요성의 감소와 정책 우선순위 하락으로, 과거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안정적인 한일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적극적 중재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과거 오바마 정부가 한 · 일 과거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과 달리 엄정중립 · 불개입 자세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글로벌화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범위 확대 및 국력성장, 일본의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 한 · 일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지역구상에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일 · 미 · 인 · 호 중심의 협력을 추진하는 일본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북방 ·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정책적 차이, 북한문제 해결에 대해 '압박과 제재'를 우선으로 하는 일본과 '대화'를 우선으로 하는 한국의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일갈등의 정치적 구조화

역사 갈등의 국내정치화에서 비롯된 한일갈등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정치적으로 봉합된 역사문제는 탈냉전 이후 한일관계의 정치적 · 경제적 구조변화, 민족주의적 의식 고양 등으로 분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양국 국내정치에 반영된 결과이다.

역사화해의 과정이 충분하지 못하였던 한일 양국의 역사적 기억이 충돌하면서, 과거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 문제는 양국 모두에게 해결해야 할 주요한 문제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역사문제에 대한 양국 정치지도자 및 정책 결정자의 인식과 태도,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 및 방향의 차이가 정책상의 변화를 가져온 이유이기도 하다.

향후 한일관계 전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한일관계는 강제징용문제 판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정도로 강제징용문제가 양국관계의 주요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에도 양국간 주요과제로 남을 수 있는 요인으로 각기 다른 사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복잡하게 얽혀 서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생하며, 미해결된 문제들이 중첩되면서 양국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 · 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종료시킴으로서 과거사갈등에서 안보갈등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적 고려사항

단기(1-3년)

한일정상간 신뢰구축 및 대일공공외교 강화

한일 정상간 신뢰 구축 및 대내외에 정확한 정보전달과 이해를 도모하여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 갈등사안에 대해 그간 한국정부가 시행해 온 활동 등에 대해 알리는 노력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국내외의 이해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강제징용문제 해결 위한 외교력 발휘

해결 방향에 대한 원칙적 자세는 견지하되,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융통성을 발휘하며 꾸준한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역사갈등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면서도 국가 간 역사화해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장기

정책수립 목표 및 비전설정

전쟁과 식민지배, 냉전기를 거쳐 구축되어 온 한일 관계는 국제사회 환경의 변화, 강대국들의 세력 전이, 양국의 국력 변화와 경제력 상승 등으로 관계 설정의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일본과 △어떠한 관계를 구축할 것인지, △책임 있는 세계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점을 함께 공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등을 통한 한일관계의 미래상과 대일외교의 명확한 목표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전략적 중요성 고찰 및 대외전략 우선순위 재조정

일본은 한국의 대외정책과 지역전략 추진에 있어 든든한 파트너이자,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임을 염두해두고 미래 비전을 그려야 한다.

정책 추진 방향

투 트랙 접근의 강화

투 트랙 접근의 추진을 위한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로 투 트랙 접근의 강화를 해야 하며, 정치영역의 관계악화가 한일양국의 안보 · 경제 · 인적교류 등 타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갈등관리 메커니즘 구축

한일 양국간 봉합되어 있던 역사문제들이 분출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갈등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문제는 한일 양국이 '함께'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상기하고, 갈등 해결을 넘어 역사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접근법을 고안해야 한다.

전문가 양성을 통한 '복합 인적네트워크' 강화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교류의 질적강화 모색은 한일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꾸준한 지원 및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1. 문재인정부 2년과 한일관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6. 28

※ 본 안보정세 분석 자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공지합니다.

국방단신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월7일 국방부에서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과 장병 취·창업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군수품의 국산화 확대와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국방부는 해외도입 부품의 구매정보 제공 등 개발·구매과정의 국산화개발 수요 발굴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연구개발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며 우수 군수품 제조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시 우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판로확대를 위해 국방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중기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하고 국방조달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증대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돕기로 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49주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8월5일 대전 본소에서 창설 4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970년 8월6일 창설된 ADD는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으로, 현무유도탄, K9자주포, 군 위성통신체계를 비롯한 주요 첨단 무기 개발에 성공하며 자주국방의 초석을 닦았다.

ADD는 지난 49년간 총 354종의 무기를 개발하며 연구역량을 쌓아왔으며, 그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미래국방 백년대계 구축을 위한 출발점에 섰다. 그 일환으로 ADD는 지난 4월 국방개혁 2.0에 따라 비닉 분야를 연구하는 본소와 군 밀착형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지상·해양·항공기술 연구원으로 역할을 재정립했다.

방사청, 한국표준협회 업무협약

방위사업청이 8월21일 민간 표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방 표준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양 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방표준화 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표준협회(회장 이상진)와 국방 표준전문가 양성 및 국방표준화 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방위사업청과 한국 표준협회는 국방표준화 업무 수행 인력에 대한 표준서, 규격서, 도면 등 기술자료 작성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 국방중기계획 발표 … 5년간 290조원 투입

F-35B 탑재 대형 수송함, 합동화력함 건조 … 군 정찰위성 5기 전력화

국방부가 8월14일 앞으로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책정한 소요재원은 290조5000억원이다.

먼저 내년부터 5년간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전력 확보에 34조 1천억원을 투입한다.

한반도 감시정찰 능력 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기로 했다. 사업비 1조2천214억원을 투입해 영상레이더(SAR)·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 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업 종료 목표 연도가 2024년에서 1년 단축됐다.

유사시 북한의 전력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국내 개발도 계획되었고 적 육상지역 표적을 지원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화력함' 건조 계획도 처음 반영됐다. 한국형 구축함(KDX-Ⅱ급)의 4천~5천t급 규모로 국내 건조되는 이 함정은 함대지 미사일 등 정밀 유도탄을 탑재해 유사시 적 지역의 목표물을 타격한다.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은 오는 2030년경 건조된다. 만재 배수량은 3만t으로, 경항모급으로 평가된다. 독도함과 마라도함(1만9천t급)에 이은 대형수송함이다. 해상에서 F-35B를 운용할 수 있어 지상공격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당국은 F-35B 20여대 가량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에서는 두 기의 그린파인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도입하고 3척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할 계획이다. 이지스함의 탄도탄 탐지레이더(SPY-1D)가 더 늘어나 전 방향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 국방부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Ⅱ를 성능 개량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해 배치하면 하층·중층 복합 KAMD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의 주력 F-15K 전투기의 레이더는 5년 내로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로 교체된다.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를 AESA 레이더로 바꾸면 적기를 빨리 보고, 선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배가된다.

공군의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도 궤도에 올랐다. A-400M급 수송기가 기종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을 고려해 군도 그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 감시·추적체계 구축 사업을 이번 중기계획에 반영했다. 한반도 우주 상공을 떠다니는 타국 위성을 감시·추적하는 체계이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과 부대 규모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지상군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첨단 무기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지상전력은 대포병 탐지레이더-II, 230mm 다연장로켓,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등을 전력화해 북한 방사포와 장사정포 등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을 해체하지만, 1개 사단 신규창설 및 숙련된 간부 증원과 전력보강 등을 통해 전투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군은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항공 및 정찰기능을 보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내 개발한 신형전차, 소형전술차량, 차륜형장갑차, 소형 무장헬기 등을 신규 배치해 지상 작전의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타격용, 통신 중계용, 수송용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드론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육군, 창업경진대회 시상식…대상에 39사단 안홍균 상병팀 육군은 8 21일 대전 KT&G 인재개발원에서 '2019 육군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대상을 차지한 39사단 안홍균 상병 팀 등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해병대 9여단 장병, 제주항일유적지 탐방

해병대 9여단은 7월31일 제주지역 내 안보유적지와 기념관 등을 둘러보는 '제주지역 일일 역사탐방' 안보견학 행사를 가졌다. 이날 장병들은 제주시에 있는 보물 제322호 관덕정을 시작으로 조천만세동산, 제주 항일기념관, 서우봉 일제 동굴진지, 제주 4·3평화공원 등을 둘러보며 제주의 역사와 항일운동 정신을 체감하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날 안보견학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본부와 제주관광공사에서 지원하는 전문해설사가 동행해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춘 스토리텔링식 진행으로 교육의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였다.

안보견학에 참가한 해병대 장병들은 "평소 정신전력교육에서 배웠던 선열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조천만세동산과 항일기념관 등을 둘러보며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며 "다시는 이런 민족의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공군2여단 군무원단, '사랑의 손길'

공군2방공유도탄여단(2여단) 군무원단이 7월26일 충남 천안시 성환읍 주민센터를 방문, 불우이웃 돕기 성금 30만 원을 기탁했다. 여단 군무원단이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무원단은 "평소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인근 지역에 결손가정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군무원단 차원에서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며 주민 센터를 거쳐 성환읍에 거주하는 결손가정에 전달돼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비·병원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무원단은 "이번 기부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군3함대 장병, 목포 구도심 벽화 조성 활동

해군3함대 헌병대대가 8월14일과 16일 목포 구도심 내 범죄취약지에서 민·관·군·경 합동 벽화 조성 활동을 펼쳤다. 노후화된 주택지역 내의 낡고 퇴색한 마을 담장과 학교 주변 거리에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된 이번 행사에는 헌병대대 장병 40여 명을 비롯해 목포경찰서 생활안전계, 목포시청 안전도시건설국 등 총 50여 명이 참가했다.

병사들은 "목포 구도심 범죄취약지 내 벽화 조성을 통해 주택지역이나 등하굣길 등 근린생활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이를 통해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기고

미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의 밤' 국위선양과 국익 증진 크게 기여

지난 7월27일 정전협정 66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쉐라톤 호텔에서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미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보은의 밤 행사'가 개최됐다.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를 통해 참전용사와 가족들에게는 무한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미국 정부와 조야에는 혈맹인 한미동맹의 끈끈함을 보여줘 국위 선양과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이 자리에는 미 측에서 폴 커닝햄 한국전참전용사협회 회장과 존 틸럴리 한국전참전추모재단 이사장, 한 측에서 조윤제 주미대사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거기에 6·25를 직접 겪은 김진호 향군회장의 진심 어린 영어 연설, 참전용사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추모의 벽' 건립 성금 전달 등이 더해져 그야말로 정부를 대신해서 안보단체인 향군이 마음으로부터 고마움을 표하는 보은 행사가 됐다. 조금 더 행사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한 강력한 보은 사업 천명이다.

민간단체 행사에 대통령 축하 메시지가 전달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께서는 조윤제 대사가 대신 읽은 메시지에서 참전용사 유해발굴 사업을 전 DMZ로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추모의 벽' 건립을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혀 보은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둘째, 진심을 담은 향군회장의 영어 연설이 참석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 회장은 영어 연설을 통해 "한국전 당시 큰 희생을 치르며 대한민국을 지켜준 것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향군이 참전용사들의 이러한 숭고한 뜻을 계승하고 전쟁 영웅들과 그 후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모의 벽' 성금을 모았다"고 하자 네 번의 기립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참전용사들과 서로 진심이 통했다는 사실이다.

셋째, 추모의 벽 성금 전달과 정부의 건립 약속이 참전용사들을 감동하게 했다.

이날 행사장에서 향군이 지난 10개월간 모금한 '추모의 벽' 건립 성금 6억3000만 원 전달식도 진행됐다. 참전용사들은 "생큐"를 연발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는 등 잠시 장내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한미는 필연적 혈맹관계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날 행사는 국내 언론은 물론 미국 현지 CNN과 FOX 뉴스를 통해 한미 양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됐다. 3년 뒤에는 워싱턴DC 내셔널 몰에 '추모의 벽'이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추모의 벽'에는 한국전에서 숨진 미군 3만6000명과 카투사 8000명 등 총 4만4000명 한분 한분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다.

내셔널 몰은 연 2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다.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자유의 여신상을 건립해 유명 관광명소가 된 것같이 이 '추모의 벽'도 완공되면 역사적인 기념물로 후세에 남게 될 것이고, 혈맹인 한미동맹의 상징이 됨은 물론 나아가 세계 평화의 기념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수
향군 국제협력실장

본고는 8월7일자 국방일보에 게제된 글입니다.

뉴스 초점

화살머리고지 완전 발굴 유해, 고 남궁 선 이등중사

지난 5월30일 DMZ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완전유해 형태로 발굴된 유해가 고 남궁 선 이등중사로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고 남궁 선 이등중사는 1952년 4월 30일 제 2사단 32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1953년 7월9일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사, 이후 66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후배 장병들에 의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고인의 유해는 포탄 파편에 의한 다발성 골절로 인해 지난 4월12일 우측 팔이 화살머리고지 내 전투 현장에서 먼저 발견되었고 이후 유해 발굴 확장 작업을 통해 5월30일 완전유해로 최종 수습했다.

병역판정검사장서 6·25 전사자 유전자 시료채취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혈족 중 6.25전사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6.25 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먼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시료채취 신청방법과 서식을 게시해 병역 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에 가족과 상의한 뒤 검사 때 DNA시료 채취에 응하도록 했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 가족에게도 DNA시료 채취 활동을 알리고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발송과 함께 보내는 병역이행안내문에도 유가족 시료채취 내용을 추가했다.

제20회 보훈문화상 후보자, 보훈문화 확산 기여 개인·단체

국가보훈처는 보훈문화 확산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에 시상하는 2019년도「제20회 보훈문화상」후보자 를 8월26일부터 10월11일까지 '나라사랑 배움터' 홈페이지(http://edu.mpva.go.kr)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보훈문화상은 개인부문, 단체부문(예우증진, 기념홍보, 교육문화), 지방자치단체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국가보훈처장 상패와 시상금 각 1,000만원(총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오는 12월에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 지역특성 맞춤형 지원

서울·강원 비롯, 전국 10개 지역 운영 … 제대군인 8만6천여명 전직 지원

강원지역 제대군인지원센터가 8월21일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에서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는 기존 일자리 연계 방식의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방식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형태로 운영된다.

이날 국가보훈처와 강원도는 효율적인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대군인 전직지원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는 강원지역 군부대 및 유관기관, 기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제대군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근접행정으로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및 민원행정서비스 품질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대학교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드론, 3D프린팅, App개발 등 교육과 실제 창업으로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지난 '04년 서울센터를 시작으로 이번 강원센터까지 전국 10개의 기관이 운영되며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8만 6천여 명에게 전직지원을 하고 있다.

국립 연천현충원 조성, 연천군과 양해각서 체결

2025년까지 국비 980억원 투입, 5만기 규모 조성

국가보훈처는 8월2일 경기도 연천군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서에는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에 대한 협력 내용과 향후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노력 등이 담겨있다. 국립연천현충원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일대 92만m² 부지에 5만기 규모의 봉안시설·현충탑·현충관·휴게소 및 식당·관리동 등의 부대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지난해 5월 국립묘지 입지선정 타당성과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해, 같은 해 10월에 부지 적격성 평가를 거쳐 연천군이 최종 선정됐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980억 원을 투입되는 연천현충원이 조성되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이은 세 번째 국립현충원이 된다.

재향군인회 상조회, 회원 전용 복지몰 구축

가전, 건강식품, 패션 등 저렴하게 제공 … 복지혜택 강화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8월16일 크루즈여행 상품, 무료 병무상담 멘토링 서비스, 향군전용묘역 등과 같은 기존 특전에 더해 최근 회원 전용 복지몰을 구축하며 회원 고객 혜택을 강화했다.

향군상조회 회원 전용 복지몰은 가전, 건강식품, 패션 등 다양한 제품을 '오렌지 최저가' 정책에 맞춰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리조트 파격할인, 해외직구, 브랜드 특가전 등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복지몰 오픈을 기념해 복지몰 가입자에게는 쿠폰 적용 상품에 한해 사용 가능한 회원가입 1만원 쿠폰을 제공한다.

재향군인회상조회 복지몰은 국가대표 336, 마음든든 450, 국민감동 520 상조상품을 가입한 기존회원 및 신규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향군상조회는 "회원들에게 더 나은 복지 및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전용 복지몰을 개설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향군상조회만의 특성을 살린 복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맞춤 혜택을 확대 ·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 및 이용 방법은 재향군인회상조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향군 문화콘텐츠사업단, 장학금 수여식

체육진흥투표권 우수가맹점에 총 1천만원 전달

향군 문화콘텐츠사업단이 8월20일 '체육진흥투표권 우수 향군가맹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학금 수여식 행사를 가졌다. 재향군인회 홍보대사인 전 국가대표 체조선수 신수지씨가 이날 수상자에게 직접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문화콘텐츠사업단의 가맹점 지원사업으로 체육진흥투표권 우수가맹점 10개점에 총 1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지원하여 체인 본사와 소속가맹점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장학금 수혜자인 이민욱 학생은 학업 중인 관계로 아버지인 우수 가맹점 아이엔지스토어 이대수 점주가 대신 수상했다.

문화콘텐츠사업단은 지난달 '체육진흥투표권 우수 향군가맹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캠페인' 선포식을 갖고, 향군 소속 가맹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위기 극복의 첨병 / 서울 관악구 향군

숙원사업, 회관 리모델링 통해 자립기반 확보

35년 된 노후회관, 이로 인한 3, 4층 임대 공실과 열악한 재정, 그간 서울 관악구 향군(회장 박봉주)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관악구 향군회원들은 이러한 어려움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향군 본연의 임무인 안보 활동과 각종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전개해 지역 중추단체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인정받고 호평을 받아 왔다.

2019년 봄, 지성이면 감천이라 할까. 묵묵히 실천해 온 회원들의 안보 및 봉사활동이 그 빛을 보게 됐다. 관악구에서 보조금 6천 만원을 획득하고 관악구 향군 기금 1억2천5백 만원을 더해 노후된 향군회관의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단행했다. 그리고 7월5일 그 준공식을 가졌다.

임대 공간 늘여 수익 증대
보조금 획득에 수년간 공들여

관악구 향군은 리모델링을 통해 3층 사무실을 지역에서 수요가 많은 10평대 사무실 3개로 분리했다. 또 4층 옥탑 사무실도 완전히 개조하여 별도 임대가 가능토록 해 기존 임대료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1층 식당과 2층 임대 사무실까지 더한다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향후 안정된 향군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현대적인 외관과 쾌적한 업무환경을 갖춘 회관 보유로 자립 기반 구축은 물론 회원들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게 됐다.

지방과 달리 보조금 획득이 어려운 서울시 각 구의 상황을 감안하면 구청으로부터 6천만원의 보조금을 획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관악구 향군은 보조금 획득을 위해 수년간 구청장, 구의회 의원, 관내 유관 단체장들을 향군회관으로 초청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향군의 활동들을 수시로 홍보하며 동시에 노후 된 회관 리모델링 필요성 제기해 왔다. 그리고 구청을 수시로 방문, 담당자들과 끈질긴 협의를 지속해 왔다.

박봉주 회장을 비롯한 관악구 향군 임직원들의 노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회장 매년 1천만원 지원
열악한 재정 속 단비

1984년 8월에 신축된 회관은 3층(50평), 4층(14평)은 옥상 누수로 인하여 상습적인 곰팡이 포진과 비효율적인 설비로 활용이 제한되었다. 이 때문에 2016년부터 임대가 되지 않았고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박봉주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과거 선배들이 해온 향군활동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 중추 단체로서 위상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2014년 취임한 박 회장은 회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매년 1천 만원 씩 지원했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열악한 회 재정을 감안한다면 단비와도 같았다. 부회장들과 이사진 또한 주요 행사 때마다 회비와 개인 찬조로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향군은 연간 네 차례 안보포럼 및 전후 세대 안보현장 체험 등 다양한 안보 활동과 보훈단체 어르신을 예우하는 보훈행사 그리고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미용 봉사, 교통 봉사 등 지역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단체의 위상을 꾸준히 지켜왔다.

회장단과 임원들의 리더십과 회원간 화합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묵묵히 극복해 온 것이다.

이제 관악구 향군은 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꾸준한 활동으로 지역에서 인정받는 단체로 자리매김한 만큼 그 위상에 걸 맞는 조직으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박봉주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거행된 한국전 참전 유엔군 영웅추대행사

미 동부 향군, 한국전 참전 유엔군 용사 영웅으로 추대

6 · 25전쟁 발발 69주년… "희생 잊지않겠다"

미 동부 향군(회장 김경구)이 마련한 한국전 참전 유엔군 용사 영웅 추대 행사가 8월24일 김득환 총영사, 표세우 대사관 국방무관과 짐 피셔 미 한국전참전용사협회 사무총장, 손경준 워싱턴 6.25 참전유공자회 회장, 이병희 워싱턴 안보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열렸다.

김경구 미동부 향군회장은 "6.25 사변이 발발한 지 이제 69주년이 됐다"면서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영웅으로 추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이 보은행사를 갖게 됐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짐 피셔 미 한국전참전용사협회 사무총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내년이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된다"면서 "한국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유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계승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 차세대들을 지속해서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에 조성될 추모의 벽 건립 진행상황을 알리면서 한인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경남 울산 향군, 국제라이온스 355-C지구와 업무 협약

경남 · 울산 향군(회장 손도수)이 8월5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지구(총재 김정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양 기관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약속했다. 양 기관은 경남지역에서 최고 · 최대 단체로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보다 질 높은 국가안보 활동과 봉사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양평군 향군, 찾아가는 안보교육

양일중 학생 430명 안보특강 … 탈북강사 초청, 북한실상 소개

경기도 양평군 향군(회장 김재성)은 8월21일 찾아가는 안보교육의 일환으로 양일중학교를 찾아 2,3학년 재학생 430명을 대상으로 안보특강을 실시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함께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평군 향군은 지난 7월19일 양평고등학교 1 · 2학년 400명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초빙된 원성애 안보교육전문 강사는 탈북강사로 '통일을 향한 두드림' 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 1시간 동안 탈북경로를 소개하고 북한의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의 교육과정 등에 대해 강연을 했다.

원 강사는 평양에 거주하다 12년 전 탈북, 대한민국에 정착해 안보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양평군 향군은 "이번 교육은 양평군재향군인회가 지역사회의 대표 안보단체로써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관내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북한의 실상을 소개하는 한편 및 통일에 대한 가치와 염원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충남 공주시 향군, '일본 수출제한' 규탄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경제보복' 일본 성토

충남 공주시 향군(회장 방재천)은 8월13일 산성시장문화공원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일본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성토했다. 방재천 공주시 향군회장은 규탄사를 통해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은 강제징용 피해자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행위"라고 지적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아베정권의 후안무치한 행위에 대해 공주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향군회원들과 시민들은 일본 아베정부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결의문 채택 후 구 터미널까지 행진하며 일본에 경제보복과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병수 공주시의회 의장, 이창선 공주시의회 부의장, 최훈 충청남도 의원도 "이번 행사가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을 공주시민들이 힘을 모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경북 향군, 6 · 25지원 인도네시아 방문

국가체육위원회 · 새마을운동 추진마을 방문, 격려

경상북도 향군(회장 양정석) 임직원들이 8월12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6.25 당시 10만 불의 현금과 쌀 등 전쟁 물자를 지원했던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경상북도 향군 임직원들은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북 향군 임직원들은 방문기간 동안 국립묘지 참배하고 국가체육위원회와 새마을 운동 추진마을을 방문, 위문품 및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유대강화 활동을 전개했다.

경북 향군은 "인도네시아는 거대한 국토와 인구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남방외교의 교두보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이자 상호 공동번영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라고 설명했다.

인천시 향군, 김진호 회장 귀국 환영 행사

인천시 향군(회장 김형년)은 8월2일 인천공항에서 성공적인 미국 안보외교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는 본회 김진호 회장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졌다.

창원 마산 합포 회원구 · 진해구 향군, 교육업무 협약

경희사이버대, 입학금 면제 및 학비 30% 감면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 회원구 향군(회장 최연호)과 진해구 향군이 8월1일 경희사이버대학교와 교육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류 등 상호 우호관계를 구축, 교류과정에서 공동발전과 협력을 약속했다.

이로써 그간의 여러가지 개인사정으로 인해 학업의 기회를 놓치거나 학업연장을 생각하는 마산합포 · 회원구 향군회원들은 입학금 면제혜택과 수업료 3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각급회 소식

이웃에 봉사하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 향군 각급회 활동

(7월21일 ~ 8월20일)

서울시 향군

관악구회 : 8월1일, 2일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왕정순 구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더위 속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관내 9개 보훈단체 어르신 200여명을 초청, 삼계탕 봉사활동 전개.

대구시 향군

대구시회 : 8월15일 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거행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및 달구벌대종 타종식 행사 참석.

중구회 : 8월14일 중구청 강당에서 열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 참석, 향군 홍보활동 실시.

서구회 : 여성회는 8월5일 서구제일복지회관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 실시.

수성구회 : 7월30일 자매결연학교 일마이스터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초청, 상호협력을 위한 간담회 실시

달서구회 : 7월21일 향군 임직원, 여성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군산악회 발대식 가져.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8월15일 인천수봉공원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거행된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식 행사 참석.

동구회 : 8월6일 자매결연을 맺은 17사단 507여단 1대대(대대장 중령 신수균)를 방문하여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에게 격려금과 위문품을 전달.

부평구회 : 8월19일 관내 '아우라지'에서 보훈단체장님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업무공유 및 지원 협조 등 현안에 대해 논의.

남동구회 : 여성회는 8월12일 문일여고 3학년 김해든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 격려하고 남동장애인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활동 실시. 여성회와 구월4동회는 7월25일 지역 어르신 250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대접, 예술단 공연, 무료진료 등 '어르신 효잔치' 봉사활동 실시.

계양구회 : 7월28일 안보현장 견학의 일환으로 포천 태국군 전적비를 돌아보면서 분단된 조국의 현실과 안보의 중요성 체득. 8월10일 작전동 야외공연장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정화작업 실시.

강화군회 : 7월31일 해병2사단 헌병대 장병 하계수련회 현장을 격려 방문, 장병들에게 식사 지원.

경기도 향군

안양시회 : 8월8일 현역장병170명을 대상으로 이상노 경기도회 안보부장을 초청, '3.1운동 및 임시정부100주년, 평화와 희망의 한반도' 를 주제로 안보강좌.

안성시회 : 천동현 회장이 8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의정&인물 대상' 조직위원가 주최한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활동부문 대상'을 수상.

과천시회 : 여성회는 8월7일 과천 관내 어르신 800여명이 급식하는 노인 복지관을 찾아 배식봉사활동.

강원도 향군

양구군회 : 8월20일 양구군 6 · 25참전전우회 양구지회를 방문, 생활고에 시달리는 참전용사들에게 생계보조비 지원 증서 전달.

충청북도 향군

청주시회 : 7월28일 자유한국당 청주서원당협의회와 함께 분평동 소하천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 펼쳐.

옥천군회 : 7월30일 관내 식당 아리랑에서 111연대 1대대 대대장과 예비군중대장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상호 안보현안 토의.

대전 충남 향군

보령시회 : 8월20일 명문예식장에서 제3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임기혁 회장 선출.

전라북도 향군

전주시회 : 여성회는 8월7일 덕진동 소재 덕진노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활동 전개.

군산시회 : 7월26일 시 안보단체협의회와 군경합동묘지를 참배하고 호국 영령과 순국선열들의 넋 기려. 8월14일 군산시민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진 광복 74주년 '제13회 국풍 우리문화예술제 참석.

김제시회 : 7월25일 지평선 어울림센터에서 청소년지원단 캠페인 부모교육과 안보교육을 실시.

정읍시회 : 8월7일 안보 보훈단체 간담회를 갖고 광복절 행사시 일본의 아베정부 규탄대회 실시 논의.

익산시회 : 한완수 회장이 8월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의정&인물대상에서 지역발전 공헌 및 국가안보기여 부문 대상 수상. 8월9일 향군회관에서 김복현 안보강사를 초청, '지금 한국은 사면초가 신세다'를 주제로 안보교육 실시.

남원시회 : 8월14일 안보 친목단체 회원들을 향군회관으로 초청, 향군상조회 홍보활동 실시.

무주군회 : 8월20일 8월말 개최되는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 자원봉사 발대식 참석.

고창군회 : 8월6일 육군본부와 보훈복지의료공단 주관, 참전유공자들의 주건개선사업인 나라사랑 보금자리사업 행사 참석. 8월14일 심원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나눔공동체 밥차와 함께 하는 네일아트 봉사활동 참가.

순창군회 : 8월1일 군 안보 · 보훈단체협의회와 순창읍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자택을 찾아 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운동 전개. 군 안보단체협의회는 8월8일 부안 고사포해수욕장에서 단합행사를 갖고 하반기 활동방안 논의.

진안군회 : 8월6일 향군 하계 수련행사를 갖고 회원 단합 도모.

장수군회 : 8월20일 보훈 안보단체 협의회를 개최하고 현 안보 현황 논의.

광주 전남 향군

서구회 : 8월10일 신안군 자은면 백길해수욕장에서 회원 미 임직원 단합행사. 8월14일 유덕동회 연락사무소 현판식.

광산구회 : 7월26일 송산교 서해정에서 일본 경제침략,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주제로 안보 간담회.

북구회 : 7월25일 두암동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께 점심식사 배식 봉사활동 실시. 8월9일 관내 5개 경로당에서 '희망닭' 나눔 행사를 갖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대접.

구례군회 : 7월24일 명지회관에서 구례군수를 초청한 가운데, 신임 회장단 상견례 및 현안 간담회.

무안군회 : 여성회는 7월25일 무안 연꽃축제장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 실시.

함평군회 : 7월27일 함평군노인복지회관을 방문, 점심식사봉사활동 실시.

영광군회 : 7월22일부터 24일까지 스포티움에서 열린 전국 남녀 종별 농구선수권대회에서 행사지원 봉사활동 실시.

경상북도 향군

문경시회 : 7월23일 박열의사 기념관내 묘소에서 거행된 가네코 후미코여사 제93주기 추도식 참석. 영순면회는 8월17일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을 찾아 전승기념탑 헌화 참배.

영주시회 : 8월1일 익산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진행되는 경북전문대부사관학군단 4기 · 5기 후보생 하계 입영훈련에 필요한 생수와 물품을 지원. 8월15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식 개최. 단산면회는 8월6일 단산면 소백산 마을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향군의 발전과 안보 제2보루의 역할 성실 수행 다짐.

상주시회 : 여성회는 7월24일 냉림사회복지관에서 배식, 설거지 등 급식봉사활동 실시.

영천시회 : 여성회는 7월31일 영천시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배식 및 설거지 봉사 활동. 7월22일 관내 신라삼계탕에서 영천시장과 122연대장, 예비군 지휘관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향군 현안 논의.

안동시회 : 임하면회는 8월8일 금소생태공원에서 회원 단합행사를 갖고 화합을 다짐.

예천군회 : 7월26일 안보단체연합회는 강원도 일대로 단합회 겸 안보현장 체험행사 실시.

칠곡군회 : 7월24일 칠곡군 애국동산에 서 묘비 및 주변환경 정화작업 실시.

경남 울산 향군

경남 울산시회 : 8월13일 안주생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경남지역 보훈단체장들을 초청하여 도 회의실에서 보훈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

거제시회 : 7월24일 장승포동회 여성회와 6.25 참전 유공자를 방문해 생계 보조비와 위문품을 전달. 8월20일 폐장을 일주일 앞둔 덕포 해수욕장에서 환경정화 활동 실시.

하동군회 : 7월25일 6 · 25 전쟁 당시 하동군 화개면에서 북한군과 싸우다 산화한 학도병들의 영령을 기리는 제69주기 화개전투 전몰학도병 추모제 참석. 8월13일 광복절을 맞아 적량면 호국공원 제초작업 및 정화작업 실시. 8월15일 알프스 푸드마켓에서 출발하여 송림 공원까지 하동 대한독립선언서 국가 문화재 등록을 기원하는 광복절 기념 걷기행사 실시. 금성면회는 8월19일 경로 · 재가 노인 회원들을 위한 반찬봉사 실시.

함안군회 : 8월7일 여성회는 39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열린 수료식에서 봉사활동 전개.

통영시회 : 8월6일 강한한의원(원장 손강한)과 향군우대 가맹점 협약식을 체결, 회원 의료복지 혜택 확대.

거창군회 : 8월6일, 7일 임진각, 판문점 등 안보현장 견학 행사를 갖고 한반도 안보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안보 중요성 체득. 7월19일부터 22일까지 백두산 및 고구려 유적지를 둘러보는 해외안보현장 견학행사 실시.

양산시회 : 여성회는 7월26일 중앙동 노인복지회관을 찾아 무료급식봉사활동 실시.

산청군회 : 여성회는 7월26일, 8월16일 고려 요양병원을 방문, 입원 가료 중인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 실시.

합천군회 : 7월26일 합천가든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합천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한국전력공사 합천지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정회원 가입 협조 요청. 8월16일부터 20일까지 군립요양원에서 목욕 및 발벗되어 드리기 봉사활동 실시.

창녕군회 : 8월2일 북한목선 귀순지역인 삼척일대 안보현장 교육 실시.

창원 의창 성산구회 : 북면회는 8월19일에서 21일까지 작계 훈련 시 더위에 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해 차량통제 및 간식 봉사 지원.

울산 4개구회 : 8월12일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 실천을 위해 태극기 스티커를 제작 나눔 활동.

울산 중구회 : 7월25일 반구동 소재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 전개. 8월15일 학성공원에서 열린 항일 우국지사 고헌 박상진 의사 순국97주기 추모제 참석. 여성회는 8월13일 노인복지회관 급식소에서 급식봉사 실시.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8월3일 추자도에서 하계 연수회를 개최하고 회원 친목 강화 및 아름다운 추자도의 자연 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 7월22일 교래리 소공원에서 원로 및 임직원 간담회.

서귀포시회 : 동홍동회는 7월28일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솔오름 인근 도로변 환경정비. 여성회는 7월29일 전남 도민회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봉사활동 실시.

회원의 목소리

아베의 경제전쟁을 넘어 극일의 길로…

구밀복검(口蜜腹劍)이란 말이 있다.

"입가에 꿀을 머금고, 가슴에 칼을 품고 나오는 음흉한 사람 "을 가리키는 말인데 겉과 속이 다른 일본의 국민성을 표현함에 적당한 듯 하다. 삼권분립이 명확하게 구분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내린 결정을 핑계로 일관된 경제보복에 임하고 있으니 말이다.

역사 이래 우리나라를 통해서 수 많은 선진문물을 소개받아 발전한 왜국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노략질과 전쟁, 근대의 주권탈취 등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악행을 자행했다. 이러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몽매한 아베 정권은 조금 발전된 기초 과학기술을 무기로 경제전쟁을 시작했지만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으며 이번에도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반일이 아닌 차분한 극일의 자세로 대항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과 국가와 민족이 위급해질 때 분연히 일어났던 민중들의 국가수호의지와 더불어 지도층들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아니 꼭 이겨낼 것이다.

최근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은 아버지인 아키히토 일왕이나 할아버지인 히로히토 전일왕과 달리 2차 세계대전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을 갖고 있었다. 실제 나루히토 일왕은 즉위식에서 "나는 전쟁 후에 태어났고 경험하지 못했다"면서 "전쟁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지금 겸손한 자세로 과거를 뒤돌아보고 비극적인 전쟁의 기억을 올바르게 전달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처럼 옹졸하고 인색한 나라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유대인이 독일에 보여줬던 용서처럼 우리 대한민국 또한 과감히 용서하고 반길 것입니다.

하루빨리 일본이 자신들이 잘못했던 과거역사를 반성하고 동아시아와 세계인류 발전에 길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아울러 대한민국의 국력을 결집하여 총력전을 펼칠 이 시기에 당리당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 또한 전 국민적인 극일의 선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주 대 진
전라북도 향군 회장

친목단체 활동

진동리지구 · 통영상륙작전전투 추모제

해병대전우회(총재 이호연)는 8월10일 진동리 전첩비에서 진동리지구 전승기념 및 추모제를, 8월11일 통영 기념비에서 통영상륙작전 전승기념 및 추모제를 거행했다.

70주년 기념행사계획 보고

갑종장교전우회(회장 김영갑)는 7월31일 향군 회의실에서 갑종장교출범 70주년 기념행사계획을 보고하고 회원 친목을 도모했다.

이영계 신임회장 취임

육군사관학교총동창회(회장 이영계)는 지난 7월18일 전쟁기념관 뮤지엄 웨딩홀에서 제13대 이영계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제22차 고엽제의 날 충혼위령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장 황규승)는 지난 7월18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제55주년 월남참전기념 및 제22차 고엽제의 날 충혼위령제를 거행했다.

동락전투 기념행사 및 안보결의대회

6 · 25참전유공자회(회장 박희모)는 지난 7월7일 충주 동락초등학교에서 제19회 6 · 25전쟁 첫 전승 충주 동락전투 기념행사 및 안보결의대회를 거행했다.

친목단체 소식 (날짜 순)

▲**6.25옹진전투전사자기념사업회:**9월4일 2사단 3821부대내에서 합동위령제.

▲**재향여군연합회:**9월6일 육군회관에서 여군창설 제69주년 기념행사.

▲**KLO 8240부대전우회총연합회:**9월6일 팔미도 등대앞에서 제69주년 인천상륙작전 팔미도 등대탈환 점등 기념행사.

▲**해군동지회:**9월7일 인천 월미공원에서 인천상륙작전 재현행사.

▲**광복군동지회:**9월17일 백범기념관에서 광복군 창군 79주년 기념행사.

▲**백골전우회:**9월17일 기계면 성계리 광장에서 기계 · 안강전투 전승 기념식.

▲**갑종장교전우회:**9월18일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갑종장교출범 70주년 기념사업 중간평가회의.

▲**정보동우회:**9월18일 프레스센터 일품현에서 임원단체장 간담회.

▲**포병전우회:**9월19일 뚝섬유원지에서 자연보호활동

▲**학도의용군회:**9월20일 대구 자유총연맹 광장에서 대구지역 전몰학도의용군회 추념식.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9월21일 임시총회.

▲**영천대첩참전전우회:**9월25일 영천호국원에서 제69주년 영천대첩기념 경축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9월26일 인천 수봉공원에서 제69주년 재일학도의용군 6.25참전 기념식.

▲**해병대전우회:**9월28일 104고지 전적비에서 104고지전투 전승기념 및 추모제.

▲**태극단선양회:**9월30일 태극단 합동묘역에서 제69주년 태극단 순국단원 합동추모제.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6 · 25 참전용사 손 자녀 및 모범병사 장학금 수여

육군협회, 2010년부터 172명 4억8백만원 지급

대한민국 육군협회(회장 김판규, 예비역 육군 대장)는 8월7일 육군회관에서 6 · 25참전유공자 손 자녀 및 현역으로 근무 중인 모범병사 등 15명을 선발해 각 200만 원씩 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선발된 장학금 수여대상자들은 6 · 25참전유공자회 및 육군 각 부대에서 추천된 인원을 대상으로 육군본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됐다.

육군협회 장학금은 한국 방위산업진흥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풍산그룹, LIG넥스원, 한화, 대한항공 등 여러 방위산업체와 개인들의 기부금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장학금은 지난 2010년 대학생 8명에게 '백선엽 장학금'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매년 육군협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2명에게 4억8백만원을 지급했다.

향군 우대가맹점

▲ 가맹점협약 업소현황
전국 1,480개 업소

▲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숙박시설, 골프장 등 이용 시 사전 예약

▲ 향군 우대가맹점 찾기
- 향군 홈페이지(http://korva.or.kr) 향군 우대가맹점 검색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 사용 예정지역 시 · 도 / 시 · 군 · 구 재향군인회에 전화 문의

▲ 신규 가맹점 현황

병 · 의원/의료기기
- **문산메디플러스내과의원**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 93) 031-950-9120 : 10~15%
- **약손안마원**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06번지 2층) 031-882-0975 : 10%
- **여주 길치과**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4번길 20) 031-885-2857 : 50%
- **차내과의원** (경북 상주시 상산로241 메디컬센터2층) 054-535-4400 : 10%

식당/음료
- **명품숯불갈비**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948) 031-536-6606 : 5~10%
- **싸리골**(흑염소영양탕) (경기도 여주시 어영실로 47) 010-9705-5072 : 10%
- **왕터매운탕** (경기도 여주시 강변로 38) 031-885-0223 : 10%

기타
- **꽃뜰**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56) 031-543-9363 : 10%
- **도리수상레저** (경기도 여주시 점도면 도리 379) 010-9338-8037 : 20%
- **메종글래드 제주** (제주시 노연로 80) 010-4692-1219 : 20~30%
- **안경박사** (경북 상주시 삼백로 76) 010-2674-2263 : 10~30%
- **에스엠통상 경산지점** (경북 경산시 남매로 4) 053-963-0091 : 10%
- **유진도요(도자기)** (경기도 여주시 여양로 289) 031-885-7272 : 10%
- **통일자동차공업사**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호국로 12) 031-536-5815 : 10%
- **필사운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753) 031-544-6652 : 10%
- **황박사장기요양기관** (경북 경산시 진량읍 황제1길 86) 053-856-0105 : 10%

▲ 우수 가맹점 현황

병 · 의원/의료기기
- **노송병원** (인천시 서구 길주로 91) 032-516-5000 : 20~30%
-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 10%
- **동작경희병원**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46) 02-822-8112 : 10%
- **세움치과**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85) 062-232-2875 : 20~40%
- **용인다보스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82번길 18) 031-8021-2114 : 10%
- **위플란트치과의원**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73) 02-432-2275 : 30%
- **통영서울병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603-11) 055-644-1777 : 15%
- **해동병원** (부산시 영도구 절영로13번길 59) 051-412-6162 : 10%

숙박/리조트
- **라마다문경새재호텔** (경북 문경시 새재2길 32-3) 054-504-7077 : 특별할인
- **렉씨제주요트투어**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17) 1544-2988 : 40%
- **밀리토피아호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360-1) 031-727-9300 : 10%
-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 (전남 목포시 상동 1144-7) 061-285-0100 : 30%
- **쇠소깍해양레저타운** (제주도 서귀포시 쇠소깍로 151-8) 064-733-0252 : 40%

기타
- **국민요양병원장례식장** (울산시 남구 야음2동 653-3) 052-269-0119 : 10%
- **그린라군 호텔 인 설악**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 141) 010-6728-2030 : 특가
- **대성공업사** (대전시 대덕구 대화로 169) 042-624-7771 : 10%
- **릴리플라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62) 055-752-7030 : 10%
- **양기순법무사**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38) 041-952-1401 : 10%
- **우등관광** (충남 서산시 안견로 237-1) 041-666-0070 : 10%
- **중앙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4) 02-844-1177 : 30%
- **청원한우마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5) 043-241-8855 : 10%
- **청주한우(청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47) 043-287-1104 : 10%
- **청풍명월한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천북로 153) 043-241-6464 : 10%

여행정보

영광 불갑산상사화축제

9월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불갑사 관광지 일원에서 〈제19회 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개최된다. 상사화의 일종인 석산(꽃무릇)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어 영광군에서는 이를 활용한 축제를 매년 9월마다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하는 축제는 '상사화, 천년 사랑을 품다.' 라는 주제로 다양한 공연 및 체험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사화는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꽃이 필 때는 잎이 없어 꽃과 잎이 서로 그리워한다는 의미가 있는 백합목 수선화과의 여름꽃으로 잎이 먼저 나와 6~7월에 시든 뒤 8~9월에 꽃이 핀다.

〈영광 불갑산상사화축제 추진위원회 061-350-5269〉

김제 지평선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 축제 〈김제지평선축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의 중심 벽골제에서 우리 한민족의 근간인 아름다운 농경문화의 정체성 계승과 하늘과 땅이 만나는 황금물결 지평선의 비경을 테마로 1999년부터 매년 9월 말~10월초에 개최되고 있다. 축제는 한국의 농경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전통역사축제로 드넓은 평야 지평선을 테마로 자연환경과 풍습, 역사 등을 보전한 가운데 자연친화적으로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경험과 다양한 감동, 교육성을 겸비한 화합의 한마당 축제다.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063-540-3031〉

양양 송이축제

'최고의 선물 양양송이! 황금빛 힐링속으로' 를 주제로 2019 양양송이축제가 9월26일부터 29일까지 양양에서 열린다. '송이가 나는 자리는 자식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귀한 먹거리이다. 특히 양양송이는 최적의 자연조건에서 자라나 맛과 향이 뛰어나다. 오로지 자연만이 길러낼 수 있는 신비의 영물 송이는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줄여줘 성인병에도 효과적이다. 축제는 청정, 체험, 소통&희망, 행복을 테마로 항노화 축제, 참여축제, 자연환경의 조성으로 무공해 양양의 이미지와 힐링을 제공할 것이다.

〈양양군청 문화관광체육과 033-670-2207,2723〉

원주 다이내믹댄싱카니발

지역축제를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도약하는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 9월3일부터 8일까지 원주시 따뚜 공연장 및 원일로 일원에서 개최된다. 메인 프로그램인 '댄싱카니발' 은 국내 최장 · 최대의 공모형 거리 퍼레이드로 축제기간 동안 해외 팀의 다양한 민속 춤, 군 장병들의 화려하고 웅장한 퍼레이드, 국내(시민)팀의 열정적이고 화려한 경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그린세이프 놀이터, 프린지공연, 군 체험 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한다.

〈원주문화재단 033-763-9401, 9402〉

향군장학기금

※ 기간 : 7월 24일~8월 23일
※ 단위 : 기부구좌(기부누계), 1구좌 1만원

▶ 개인

- 향우산업 대표이사 허재수 10(160)
- 대한민국부사관총연합회 고문 정소두 1(7)
- 일반회원 대구시설관리공단 신현우 1(38)
- 일반회원 ㈜대창농축 오승훈 1(38)
- 일반회원 다온중학교 교사 이미래 1(36)
- 일반회원 우리은행 신현정 2(34)
- 일반회원 JSA 경비대대 이한수 1(20)

▶ 정기기부

- 일반회원 이정호 1(259)
- 권율부대 선거이 연대 강모아 1(49)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417-588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기부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 금 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재향군인신문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한 간 별 월 간
2019년 4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768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서초동, 1365-16)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

대상포진, 옷깃만 스치거나 바람만 닿아도 통증

증상

대상포진은 몸의 한쪽으로 띠 모양의 발진과 수포가 나타나기 때문에, 띠 모양의 포진 즉 대상포진이라고 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느 부위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 흉부와 안면부에 호발하고, 대개 하나의 피부 분절에 국한된다. 피부에 발진 수포 등이 나타나기 며칠 전부터 심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염좌, 추간판 탈출증, 담, 담석이나 결석, 협심증 등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

피부 병변이 나오기 수일 전부터 몸의 한쪽 편 피부가 가렵거나 저리고 쏘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며, 이후 띠모양으로 발진이나 물집이 생기고 딱지가 앉게 된다.

이러한 피부 병변은 2주에서 4주가 되면 흉터나 거뭇거뭇하게 색소 침착을 남기고 치유가 되나 통증은 신경손상과 신경 전달 체계의 교란에 의해 점점 심해지게 된다. 예리하고, 찌르는 듯한, 전기가 오는 듯한, 화끈거리는 듯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옷깃만 스치거나 바람만 닿아도 통증이 생기는 신경병성 양상의 통증이 나타난다.

또한 대상포진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서 뇌수막염, 실명, 안면마비, 청력 손실, 근력 저하 같은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다. 적절한 치료를 한 경우 통증은 피부 병변이 생긴 지 대개 1, 2개월 지나서 사라지게 된다. 일부에서는 3,4개월이 경과하여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원인은 신경 손상과 지속적인 통증 신호 자극에 의해 통증 전달체계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 이라고 하며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원인

수두를 앓게 되면 수두를 일으켰던 수두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고, 신경 속에 오랜 기간 동안 잠복하게 된다. 스트레스, 과로, 암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 등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 바이러스는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처음 수두를 일으켰을 때와는 다르게 자신이 숨어있던 신경에 손상을 줘 감각저하, 신경병성 통증, 이상감각을 일으키며 그 신경을 타고 나와 피부에 발진, 수포 등을 일으킨다.

진단 · 검사

몸의 한쪽으로 신경분절에 따른 띠 모양의 발진이나 수포 등의 특징적인 피부 증상과 신경병성 통증으로 진단한다. 그러나 드물게 피부 증상이 없이 신경병성 통증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수두바이러스에 대한 면역혈청학적 검사를 통해 대상포진을 진단할 수 있다. 단순포진, 벌레 물린 것, 늑간 신경통, 염좌, 추간판 탈출증, 담석, 결석, 협심증 등의 질환으로 오인될 수 있어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치료방법

대상포진의 치료 목표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초기에 억제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며 손상된 신경의 회복을 도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환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발진이나 수포 같은 피부 증상이 나온 후 3일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통증을 조절해야 한다.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손상된 신경에 혈류를 증가시켜 손상된 신경의 회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신경통으로 진행을 최소화 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치료 시작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 효과적이다.

예방법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해야 한다. 대상포진 예방백신은 50세 이상 혹은 면역력 저하가 있는 경우에 접종 대상이다. 접종을 하게 되면 예방 효과가 있고, 설혹 대상포진이 발생하더라도 증상이 경미하게 되며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십니까?"

여러분 곁에는 '향군전용묘역' 이 있습니다.

1천만 향군회원 및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군은 국립묘지 또는 호국원 안장 여건이 되지 않는 우리 향군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향군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향군전용묘역을 경기도 분당에 조성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만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한 여러분 모두가 국가유공자입니다. 향군은 앞으로도 제2, 제3의 전용묘역 조성 및 회원 복지증진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을 계속 발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해 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예비역 육군대장 김 진호

안장대상

·향군회원/친목안보단체회원 ·해외교포 중 안장희망자
·재향군인회상조회 회원 ·이외 안장대상 일반인 희망자

이용특전

· 분양가 할인 제공 · 안장 및 의전행사 지원

크리스탈단 봉안시설	수목장 시설
개인단 기준 250만원~750만원	공동목 기준 270만원

재향군인회상조회가 '휴' 와 함께 국립묘지에 준한 묘역관리로 고인·유족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재향군인회상조회 상담문의 : 02-2218-7143